



주빈국 행사, '우리 문화를 세계에 비춰보는 거울'

권양숙 명예조직위원장 <출판저널> 서면 인터뷰
'대한민국의 현재적 모습 세계인에게 각인' 기대
책 읽기 생활화 위해 도서관 문턱 낮출 필요도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명예조직위원장이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번 주빈국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값진 기회"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최근 있는 <출판저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권 명예위원장은 "우리 문화가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를 세계의 문화 수준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정직한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명예위원장은 진작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한 후 수차례 김우창 조직위원장과 박맹호(사)대한출판문화협회장 등 출판·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도서전 준비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지난달 대통령 내외의 증남미 순방과 최근의 뻘뻘한 공식 일정으로 인해 서면 질의서로 대체한 인터뷰에서 권 명예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럽 및 세계와 우리나라의 간극이 한층 좁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두고 권 명예위원장은 "이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기꺼워 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주빈국 행사를 앞두고 현지에서 펼쳐진 '한국문학 순회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이처럼 문학작품만 아니라, 영화, 음악, 미술과 같은 다양한 문화 장르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감수성을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권 명예위원장은 평소 책과 '책 문화', 특히 도서관 확충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증하듯, 서면 인터뷰에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고,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주빈국 행사와 독서문화에 대한 권양숙 명예위원장의 소감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가 제 57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출판은 물론, 문학과 예술 등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빈국 참가가 우리 문화발전과 사회의 지적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문화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전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도,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주빈국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값진 기회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문화가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를 세계의 문화 수준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정직한 '거울'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히 이번 주빈국 참가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과 같은 행사에서 우리가 세계 각국에 어떤 문화적 자산이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얼마전 신문과 TV를 통해, 우리 문학인들이 독일 각 지역을 순회하며 현지 시민들과 어우러져 낭독회를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서점에 모여 동양의 낯선 나라에서 온 작가들이 읽어 내려가는 책 한구절 한구절을 음미하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올초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어졌던 '한국문학 순회 프로그램'이 독일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영화와 음악, 미술과 같은 다양한 문화 장르를 통해 우리 문화가 지닌 다양성과 독특한 감수성을 알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빈국 행사를 통해 선보일 '한국의 책 100'과 '작가의 벽', '한국영화 독일순회전'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한국 문화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조직위원회에선 행사 기간동안 현지에서 '한국의 정원' 꾸미기와 한국문학소개 이벤트 등을 통해 '유럽에 스며든 한국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명예위원장님께서 프랑크푸르트주빈국 행사가 끝난 후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과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길이 남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낯선 나라입니다. 이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빈국 행사에서 소개될 여러 전시회와 공연 등은 반만년에 이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적 모습을 세계인에게 새로이 각

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한 국가의 지적 성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독서문화의 고양입니다. 널리 책이 읽히고, 생활속에 독서가 자리 잡기 위해 국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지요?

흔히들 오늘날을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은 물론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는 사회에서,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새로운 영감과 창의력을 얻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깨우치고 미래의 꿈을



지난 해 김우창 조직위원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직지심경 활판본을 본뜬, 한글 서체로 된 명예조직위원장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심어갑니다.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나라의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1인당 독서량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책 읽기가 큰 맘 먹고 시도해봐야 할 결심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연스런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현재 조직위원회에선 행사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원만한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와 문화계, 출판계 관계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훌륭히 행사를 준비해 오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신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빈국 행사가 역대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성공적인 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많은 관심과 협력,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최**

사진제공_ 청와대